

2016년 10월 21일,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덕, 송정희 조사.  
부신남(여, 1920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조사자] 이 동네에.

[제보자] 옛날엔.

[조사자] 문어이야기 같은 거 엇입니까? 문어, 문어가, 문어, 문어.

[제보자] 문어?

[조사자] 응. 문어.

[제보자] 문어가 바당에 잇입주.

[조사자] 응. 그게 어떻 행 숫 우이 앓아져 허는 애긴 안 들어봣디가?

[제보자] 물에 들어서 잡앗지 뭐.

[조사자] 그게 어떻 하당 보난, 숫뚜껍 우에 앓앙 잇어라 허는 애긴 안 들어봣디가?

[제보자] 저 우이, 숫덕 우이 앓앗더라.

[조사자] 응.

[제보자] 옛날에 갯것이 강 바르 잡아당, 어떤 어떤 할, 저, 흙쓸 모슬력 할망이지. 그 문에가 빠짝빠짝 부뜨지 안 허냐? 하간 것에. 몸에도 부뜨고, 구덕에도 부뜨곡, 허난, 보말 잡아네 혼 디 노난 보말 숫더레 탁 비우나네 이젠, 그 문에는 떨어지지 아녀서 구덕에 부떠분 걸 몰랐어. (웃음) 몰랐어. 구덕을 영 혼바짝더레 정지에 혼짝더레 영 낱 네비지. 허난 그것이 이젠, 흙곰 뚝뚝헤가난, 그 보말 솜는 디 영 기어갓어, (웃음) 불치를 써 부난, 거멓헛지. 문에가. 거멓헛어 숫덕 우이에 앓이난, 걸 구신 나왔다고 헛지. 구신이 나왔다고. 갱 말제는 보난 몽둥이로 두드리멍 보난 문에라. 그것이, 구신이 아니고. 갱헛다고 옛날 할망덜 말 곤지. 우리 우리 나기 전에지.

우리 난 때는 이녁냥으로 강 심곡, 갯것이 강 막 두들리곡, 허민 그 먹 내어불곡 허민, 죽어지지. 니빨도 빠 불곡. 그냥 산 차 심영 구덕에 낯당은 바당에서도 일러비여. 갯것이에도 구덕 영 차그네, 뭐 보말도 잡아 놓곡, 우미 넣고, 메역도 툰아 놓고 허민 문에는 히어 덩기당 영 돌 일르민 돌에 탁 잇곡. 갱 허문 문에는 심영 구덕에 들이쳐당은 뭇게 일러비는 사름 만헤여. 거 말제는 거 돌에 강 탁탁 두드리멍 죽여서 놔야, 뿔에 뭇영을 노나 그러헤났지.

- 핵심어 : 구좌읍 세화리, 숫, 문어, 갯것이, 구덕, 구신